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Determinants of Householdwork and Child Care Time of Wives and Husbands

미국 위스콘신대학(매디슨) 소비자학과

객원교수 : 許 慶 玉

Consumer Science Dep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Visiting Prof. : Kyungok Huh

본 연구의 기본적 취지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와 자녀 양육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가사분담 및 육아시간 설명에 유용하게 쓰여온 다양한 관점의 이론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입된 이론은 경제적 효율가설(Economic Efficiency),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Demand/Response Capability), 성 역할관념가설(Sex-Role Ideology), 그리고 상대적 자원가설(Relative Resources)이다. 이 가설들로부터 유출된 대응변수들의 부인과 남편의 가사와 육아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 변수들은 임금률, 부부간의 임금률 비율,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 어린자녀 수, 성별에 따른 역할에 대한 사고관, 소득, 부부간의 상대적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연령, 가족형태, 인종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는 1988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매디슨)내의 인구 및 생태국(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에서 실시한 전국 가족 및 가계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이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량을 설명하는 이론의 효과검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역할 관념가설은 부인과 남편 모두의 가사 및 육아노동 시간을 잘 설명하는 가설로 나타났고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은 남편보다는 부인의 가사와 육아시간에 더 설득력 있는 가설임이 밝혀졌다. 대체적으로, 경제적 효율가설과 상대적 자원가설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이 남편의 총 가사시간을 설명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으나, 남편의 여성중심형 과업시간에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I. 서 론

현대사회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는 기혼여성들의

사회진출 또는 취업의 증가에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산업 확대 및 여성노동의 필요성, 보다 나은 경제적 생활 욕구, 여성의 자

아실현육구 등 여성자체의 변화와 함께 가속되어 왔다. 이 같은 여성취업 증가와 함께, 성에 따른 역할변화, 남편의 가사 및 육아참여의 중요성 등으로 가사 및 육아시간 연구에 많은 관심이 있어 왔다. 특히, 맞벌이가정에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위한 일의 분담은 결혼한 직장여성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사이며 그 효과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정도가 큰 점을 고려하여 이 분야의 연구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어왔다(Hoschild, 1989; Thompson & Walker, 1989). 점차, 시간이 중요한 희소자원으로 간주되면서, 가사노동과 육아시간 분배실태 및 그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파악에 초점이 맞추어져왔다.

남편의 가사 및 육아의 적극적 참여의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생활에서 남편의 가사 및 자녀양육 참여는 여전히 도와주는 정도의 수준임이 밝혀져 왔다. 또한 남편의 참여시간은 남편들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개인적 선택 또는 의지로(Individual choice) 인식되어왔다(Barnett & Baruch 1987; Cherlin, 1988).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의 가사노동 및 육아시간 역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Maret & Finlay, 1984), 이 차이들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인과 남편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알아본다.

가사 및 육아시간 분석과 관련된 이론적 연구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각기 다른 학문적 관점으로 인한 다양한 이론, 상이한 가사 및 육아노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 또는 결과 해석상의 차이 등 연구자 및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연구를 축적시켜 왔다. 이 같은 다양한 연구들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을 갖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유용하게 쓰인 다양한 시각 또는 관점의 이론을 도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노동 시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결정요인을 규명하는데 취지가 있다. 보다 유용성이 높은 자료인(예: 최근의 자료, 대표성이 큼, 충분한 표본수, 시간이용의 정확한 조사)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를 이용하는 것도

본 연구의 가치를 높인다고 하겠다.

II. 선행 연구 고찰

1.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연구

가사와 육아분담과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들의(예: Bergen, 1990; Berk, 1988; Pleck, 1977; Vanek, 1983) 공통적인 결과를 살펴 보면, 첫째, 맞벌이가정에서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은 부인시간의 1/3 정도이다. 육아시간에 대한 남편의 공헌도 연구에서 맞벌이부부 가정에서 자녀양육 노동의 33%가 남편에 의해 실행되었음이 조사되었다(Lamb, Pleck, Charnow & Levine, 1987). 일치하는 선행연구 결과는, 부인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남편이 비취업상태에 있다 해도, 가사 및 육아노동을 똑같이 나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부인의 취업과 무관하게 남편의 가사노동은 크게 증가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부분의 남편은 많은 종류의 가사업무중 특히 여성중심형 과업(female-typed tasks) 또는 여성중심형 가사노동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많은 남편들이 육아 참여에서 자녀와 함께 놀아주기, 함께 TV 시청하기, 과제물 도와주기, 소풍 및 야유회 가기 등 좀더 자유롭고, 즐거우며, 여가활용에 적당한 노동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인은 자녀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등 기본적인, 기피되어지는 기본적 육체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Belsky, Gilstrap & Rovine, 1984; Feldman, Nash & Aschenbrenner, 1988). 가사노동 참여에서도 남편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온 여성중심형 과업 참여를(예: 음식만들기, 설거지, 청소) 기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성중심형 과업은 대부분 매일 행해져야 하는 일로서, 미루거나 시간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경우가 많고, 비사회적 활동으로 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며, 반복적인 성격을 띠고있다. 반면, 남성중심형 가사노동은(male-typed tasks) 시간제약에 맞춰 행할 시간을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는 것들로서, 여성중심형 과업보다 여가성을 띤 활동이며, 사회 관련 업무이며, 주말 등에 주로 행해지며,

가끔씩 해도 되는 일로서 매일 해야 하는 일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같은 양의 노동 시간일지라도 어떤 일에 소비된 시간인가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주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사 및 육아노동의 통합적 분석보다는 필요에 따라 가사 및 육아 노동의 성격 또는 그 함축적 의미에 따라 구별,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가사 및 육아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에 있어서, 널리 검토되어온 요인은 부인의 취업상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 및 성과, 성별에 따르는 역할에 대한 관념 또는 태도(sex-role attitudes), 사회 경제적 자원(예 : 소득, 교육수준, 직업), 여타의 사회 인구적 요인이었다. 선행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업 또는 근로시간

가사분담 연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부인의 취업 또는 근로시간이 부인 자신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는, 직장을 가진 부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은 전업주부의 시간보다 적다는 것이다. Maret와 Finlay(1984)의 연구에서 맞벌이가정에서 부인은 음식준비, 설거지, 청소, 자녀 돌보기 등을 위한 시간 할애가 전업주부보다 적다고 밝혀졌다. 그들은 또한 이 연구에서 부인의 근로시간과 부인의 가사 및 육아노동 시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부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이 남편의 시간에 미치는 연구에서, 부인의 취업은 남편의 가사 노동 시간에 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Blood & Wolfe, 1960; Hiller & Philliber, 1986; Huber & Spitze, 1983; Kamo, 1988; Maret & Finlay, 1984).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부인의 취업상태가 유의미한 요인이 아님이 발표되었다(Berk, 1985; Coverman & Sheley, 1986; Geerken & Gove, 1983; Shelton, 1990). 한편, 많은 연구가 남편의 직장 또는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과 남편 자신의 가사 및 육아시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Bergen, 1990; Coverman, 1985; Coverman & Sheley,

1986; Stafford, Backman & Dibona, 1977).

2)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및 효율성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및 효율성의 효과는 주로 임금률의 효과로 조사되어왔다. Farkas(1976)는 부부간의 가사분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 임금률과(relative wage-부부간의 임금률 차이) 임금 비율의(wage ratio-남편임금 나누기 부인의 임금)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Gronau(1977)의 연구에서도 임금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Berk와 Berk(1978)는 가사분담은 생산성 또는 효율성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별, 사회적 위치(social class) 및 사회전체적 인식 등이 함께 설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3) 사회경제적 자원(소득, 교육, 직업)

사회경제적 자원이 남편의 시간분배에 미치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에서 남편의 소득과 그 자신의 가사 및 육아시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음이 발표되었다(Blood & Wolfe, 1960; Ericksen, Yancy & Ericksen, 1979; Maret & Finlay, 1984). 남편의 교육수준과 그 자신의 육아시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발표되었으나(Coverman & Sheley, 1986; Gronau, 1976; Riley, 1987), 가사시간에는 부적인 효과가 있음이 조사되었다(Coverman & Sheley, 1986). 반면, 남편의 높은 교육수준이 육아 시간을 증가시키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었다(예 : Coverman & Sheley, 1986; Robinson, 1977). 비전문직 종사자인 남편의 양육시간이 전문직 종사자의 시간보다 긴 것으로 발표되었다(Levy-Shiff & Israelashvili, 1988; Volling & Belsky, 1985). 반면, 어떤 자원도 남편의 시간 사용 또는 가사분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발표된 연구도 있었다(예 : Bergen, 1990; Huber & Spitze, 1983). Coverman과 Sheley(1986)의 연구에서 남편들의 직업은 가사 및 육아시간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Maret와 Finlay(1984)도 부인의 교육수준은 부인의 가사와 육아시간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4) 성 역할 관념

성에 따르는 역할 가치관 또는 태도의 효과에서

남편과 부인의 관념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Barnett & Baruch, 1987; Mchale & Huston, 1984). 성에 따른 역할에 대한 사고에서 보다 비 전통적이고 자유로운 사고관을 가진 부인의 경우 그녀의 가사 및 육아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Stafford et al., 1977), 남편의 경우 그의 가사노동 시간은 긴 것으로 밝혀졌다(Huber & Spitze, 1983; Kamo, 1988; Ross, 1987). 역할에 대한 사고관이 배우자의 가사와 육아시간 분배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어떤 결과들은 부인의 관념은 남편의 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발표되었고(Huber & Spitze, 1983; Kamo, 1988; Ross, 1987), 반대로 Coverman(1985)과 Hochschild(1989)의 연구에서는 남편 자신의 관념이 아닌, 부인의 관념이 남편의 시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역할에 대한 관념의 무효과가 조사되기도 하였다. Maret와 Finlay(1984)은 부인의 태도 또는 역할에 대한 사고관은 그 자신의 가사 및 육아시간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고, Bergen(1990)은 남편의 사고관의 차이는 그 자신의 가사 및 육아시간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5) 사회 인구적 변수들

사회인구적 변수가 가사분담에 미치는 효과검증에서, 연령, 자녀수, 자녀 연령은 유의미한 요인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Berardo et al., 1987; Hiller & Philliber, 1986; Maret & Finlay, 1984; Ross, 1987). Maret와 Finlay(1984)는 부인의 연령은 자신의 가사 및 육아시간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반면 Coverman(1985)의 가사시간 연구에서 남편 연령은 부적인 효과, 자녀수 및 어린자녀의 존재는 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Coverman과 Sheley(1986)의 10년간의 가사시간 변화 연구에서, 1965년도에서는 연령의 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1975년의 조사에서는 30세이전의 남편의 가사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 어린자녀를 가진 남편의 경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육아시간은 크게 증가함이, 그러나, 가사시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인종의 연구에서 흑인남편이 백인보다 가사 및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발표가 있었다(Ericksen et al., 1979).

III. 이론적 배경

많은 연구자들이 가사 및 육아노동 시간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전개하여왔고 또 그 효과를 검증하여왔다. 이 이론들중 보다 널리 유용되어왔고 설득력있는 네가지 이론은 경제적 효율가설(Economic Efficiency),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Demand/Response Capability), 성 역할 관념가설(Sex-Role Ideology), 그리고 상대적 자원가설(Relative Resources)이다. 이 네가지 가설들은 각기 가사 및 육아노동시간 설명에 있어서 그 초점과 관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가설들은 선행연구에서 도입 적용되었고, 또한 그 효과가 검증되어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가사 및 육아노동을 설명하는 이론중 한 두 가지만을 모델설정시 도입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여 온 제약점이 있었다. 이 가설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효율가설(The Economic Efficiency Perspective)

이 가설은 신가정경제학파의(New Home Economics) 기본적 이론에서 발전되어온 것으로 신가정경제학파의 가장 큰 공헌점은 전통적 경제학에서 도외시되어 온 비시장활동인 가정노동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재조명한 것이다(Berk, 1980). 이 가설의 기본적 전제는 어떠한 일의 시간은 그 소비로 인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할애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다(Becker, 1965, 1974).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의 시간분배는 가족전체의 최고 효용을 얻기 위한 것으로 경제적 효율성 또는 성과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이다(Farkas, 1976).

경제적 효율성의 측정에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동시장에서의 효율성 즉 임금률로 대응되어져 왔다. 이 가설을 부부의 가사 및 육아시간 배분에 적용하면, 남편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은(임금률에 의해 결정됨) 그 배우자인 부인의 것보다

높으므로 남편은 보다 많은 시간을 노동시장에 할애하게 되며 부인은 가사 및 육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이다(Becker, 1974). 다시 말해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의 기회비용은 배우자인 부인의 기회비용보다 높아 그들의 가사 및 육아시간은 부인보다 적은 것이다. 이 같은 분배는 가족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설명되어진다(Condran & Bode, 1982).

이 가설이 기본적 경제이론을 도입하여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전개하기는 하나 실제적 가정생활에 적용시 문제점이 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이 효용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전제는 가정생활에 적용시 문제점이 많다(Hiller, 1984). 특히 부부관계는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이 의사결정의 근간이 된다는 가설이 적용되기 어렵다. 예를들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인 남편이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남편보다 가사노동의 참여가 높은 경우는 이 가설의 기본적 전제와 부합되지 않는다(허경옥, 1993). 또한, 부인의 임금이 남편보다 높은 가정에서도 가사노동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온 바,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높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 가설의 효과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 이 가설은 개인간 각기 다를 수 있는 선호도, 취미, 습관, 에너지, 가정환경 등이 고려되지 않아 설명력에 있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은 가정내에서의 특징적인 윤곽을 잘 보여주며 비시장활동인 가정활동을 경제적 영역으로 새롭게 설명가능케한 측면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어왔다.

2.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The Demand Capability Perspective)

이 가설은 사회학자 Coverman이(1985) 이용가능시간가설(Time availability)에 가사노동의 요구 또는 수요와의 접근을 시도한 가설이다. 따라서 이 가설은 가정내의 상이한 환경조건과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가사노동은 가정의 생태환경과 조건에 지배를 받는다고 전제하고있다(Coverman, 1985). 기본적 전제는 가사 및 육아의 수요가 많을수록 가사 및 육아시간은 증가하며 이용가능시간이 많을수록

가사 및 육아시간은 증가한다. 따라서 이 가설은 가사노동의 수요와 가능시간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다. 보통 가사 및 육아의 수요는 어린자녀수 또는 총자녀수, 부인의 취업상태 등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자녀의 수가 많거나(특히 어린자녀수) 맞벌이가정은 가사 및 육아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용가능시간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이 이용가능시간의 양으로 측정되어져왔다(Blood & Wolfe, 1960; Berk, 1985; Condran & Bode, 1982; Model, 1981).

이때 부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은 남편이 해야 할 가사노동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남편에게는 수요로 간주되며, 동시에 부인 자신에게는 가사 및 육아의 가능시간의 정도는 적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같은원리로 남편에게 그 자신의 근로시간은 가사노동 가능 시간의 정도를 나타내며, 배우자인 부인에게는 수요로 간주된다. 따라서 어린자녀가 있는 맞벌이가정에서 남편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증가한다고 전제되어진다.

3. 성 역할 관념가설(The Sex-Role Attitude Perspective)

이 가설은 정신적인 사고나 태도, 특히 성에 따른 역할, 부모의 역할, 부인의 취업, 남편의 가사 참여 등에 대한 관념 또는 가치관이 가사 및 육아시간 소비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Barnett & Baruch, 1987; McHale & Huston, 1984; Ross, 1987). 이 가설의 전제는 역할에의 관념이 보다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사고관 또는 태도를 가진 남편은 진보적이며 비전통적인 사고관을 가진 경우보다 가사 및 육아에 더 적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다(Bergen, 1990). 반면, 역할에의 관념에 있어서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사고관을 가진 부인은 그렇지 않은 부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사 및 육아에 할애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설은 개개인의 가치관 또는 관념에 관한 정신적인 면을 증시함을 알 수 있다.

4. 상대적 자원가설(The Relative Resources Perspective)

이 가설은 Blood와 Wolfe에(1960) 의해 최초로 전개된 가설로서, 기본적 전제는 부부간의 의사결정시 부부 각각의 물질적 자원의 비교에 의해 의사결정의 주도권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가사 및 육아시간 연구에 적용하면, 부부중 사회경제적 또는 물질적자원이 우위에 있는 사람은 가사 및 육아시간 소비량 결정과정에서 주도권이 있으므로 그 사람의 가사 및 육아에의 할애시간은 감소한다는 것이다(Kamo, 1988).

실제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상의 지위의 비교를 통해 가사 및 육아시간량을 설명하였다(예 : Farkas, 1976 ; Ericksen et al., 1979, Condran & Bode 1982 ; Coverman, 1985). 이 이론에 따르면 남편은 교육, 소득, 직업상의 지위 등에서 부인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의사결정시 주도권이 있으므로 그들은 가능한 가사 및 육아노동의 참여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의 가사 및 육아시간 연구 적용시 그 설득력의 정도에 대한 면에서 문제점이 제기 되어왔다. 남편에 비해 교육, 소득, 직업상 우위에 있는 부인의 경우에도 실제적 가정생활에서 배우자인 남편보다 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물질적 자원 이외에도 정신적, 질적인 요소가 의사결정의 원천으로 고려되어야 함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매력도, 사랑, 결혼 지속성에 대한 열망, 대화의 기술 등도 비교될 수 있는 자원으로 간주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네가지 이론을 본 연구의 목적에 응용하여 세워진 가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효율가설-고임금률을 가질수록 가사 및 육아시간은 감소한다. 부부간의 임금률비교에서, 임금이 높은 남편을 가진 부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은 증가한다.

2)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이 긴 배우자를 가진 경우, 어린자녀가 많은 경우, 가사 및 육아시간은 증가한다. 반면, 본인의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이 긴 경우는 가사 및 육아시간은

감소한다

3) 성 역할 관념가설-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관념을 가진 남편일수록 가사 및 육아시간은 감소한다. 반대로, 보수적이며 전통적인 사고관을 가진 부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은 증가한다.

4) 상대적 자원가설-자원을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가사 및 육아시간은 감소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배우자보다 높은 소득을 가질수록 가사 및 육아시간은 감소한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 종사자일수록 가사 및 육아시간은 감소한다.

IV. 연구방법

1. 자 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는 1988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내의 인구 및 생태국(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에서 실시한 전국 가족 및 가계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이다. 이 조사는 5년마다(2차 조사는 1993년 실시) 정기적으로 조사되는 패널조사로서 가계특성, 가계소득 및 경제적수준, 부모-자녀 관계, 부부관계, 시간분배 등 가정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조사방법은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로써 응답자와 응답자의 배우자가 각각 조사에 응했으며, 아동, 가족, 사회, 가정, 경제, 소비자학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각광받기 시작한 귀중한 자료이다. 이 조사는 전국 모든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확률적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며, 총 조사자는 13,017명이었으며, 조사가족은 9,643 가족이었다(Sweet, Bumpass & Call, 1988). 이 조사는 응답자(Primary respondent)와 응답자의 배우자가(Secundary respondent) 동시에 조사에 참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시간이용에 관한 조사에서도 한 가정내 부인과 남편이 자기 자신의 시간분배를 응답하였으므로 남편의 시간이 주로 부인에 의해 측정되어온 종전의 많은 조사보다 비교적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고, 부부 두사람 각각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이 조사의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2. 표본구조

본 연구의 목적인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시간 소비량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기 위하여 결혼한 가정이 추출되었다. 선행연구들이 결혼상태에 따라(예: 편부/편모 가정, 동거 가정) 시간 이용 패턴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온바(예: 허경옥, 1998), 본 연구에서는 결혼한 부부가 선정되었다. 이때 부부의 가사 및 육아 노동시간은 자녀가 있는가 없는가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Bergen, 1990), 1명이상 18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 추출되었다.

3.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5개의 종속변수가 사용되었다. 먼저 가사시간은 NSFH 조사에서 일주일간 8가지 일에 대한 소비시간이 조사되었으므로 이 8가지 일의 소비시간의 합이 총 가사시간으로서 종속변수로 이용되었다. 이 8가지는 음식비, 설거지 및 식사후 정리, 집안청소, 집수리 또는 정원손질, 장보기 또는 물건구입, 의류손질 및 세탁, 서류정리 및 공과금 내기, 자동차수리 및 각종 관련노동이다. 여기에서 부인과 남편의 총 가사노동 시간이 분리, 측정되었다. 이때 개별적 가사노동 각각의 내적 일관성을 보는 Cronbach 알파는 0.75이었다.

추가적으로, 남편의 여성중심형 과업에의 할애 시간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므로, 하나의 종속변수로 이용되었다. 이때 4가지 일의 시간의 합이 여성중심형의 과업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는 음식준비, 설거지 및 식사후 정리, 집안청소, 그리고 의류손질 및 세탁에의 일이다.

NSFH 조사에서 육아시간도 조사되었는데, 5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자녀양육시간이 조사되었다. 이때 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기본적 육체적 일(예: 기저기 갈기, 음식 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놀아주기 등), 일 주일간, 소비된 시간이 조사되었다. 육아시간 분석에서도 부인과 남편의 시간이 분리, 분석되었다.

4. 독립변수

독립변수들은 4가지 이론에서 유출된 대응변수

들과 본 연구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추가된 사회인구적 변수들이다. 이때 자기 자신의 요인은 물론, 배우자의 요인도 자신의 가사 및 육아시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두 독립변수로 이용되었으며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 변수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적 효율

부인과 남편의 시간당 임금과 부부간의 임금 비율이(wage ratio) 사용되었다. 임금비율인 상대적 임금은 남편 임금을 나누기 부인의 것으로 측정되었다.

2) 수요와 실행 가능

해야 할 가사노동 수요의 정도는, 배우자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과 가정내의 5세미만의 어린자녀 수로 측정되었다. 가사 및 육아에 대한 실행가능시간은 본인의 1주일간의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으로 측정되었다.

3) 성 역할 관념

성에 따르는 역할과 관련된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사고관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가지 질문이 이용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 ㉔ 기혼부는 직장에서 일하고 기혼모는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다.
- ㉕ 기혼모의 직장생활은 취학전 아동에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 ㉖ 맞벌이부부의 경우 가사노동은 똑같이 분배해야 한다.

질문문항 ㉔, ㉕ 대한 응답선택에 있어서 "강하게 동의한다"에 1점, "동의한다"에 2점, "중간이다"에 3점, "동의 안한다"에 4점, "절대 동의 안한다"에 5점을 주었다(질문문항 ㉖의 경우는 질문문항 ㉔, ㉕의 경우와는 반대). 역할관념의 정도는 3개 질문항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다. 이때 3개 질문항의 평균값이 낮은 값일수록 보수적 또는 전통적인 사고관을 가진 것으로, 높은 값일수록 진보적 또는 비전통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각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 알파는 0.48이었다.

4) 상대적 자원

세가지의 경제적 또는 물적자원이 고려되었는데, 이는 소득, 교육, 그리고 직업이다. 소득수준은 자신의 소득수준과 부부간의 비교에 의한 상대적소득이(relative income) 이용되었다. 부부의 교육수준과 직업은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간에 커다란 차이가 없으며, 그 자체의 효과를 보는 것에도(상대적 개념이 아닌) 의미가 있으므로, 시간분석에서 자신의 교육수준과 직업이 독립변수로 이용되었다.

㉔ 소득수준-부인과 남편 각각의 연간의 세금 공제전의 총 소득으로서 \$10,000이하는 1점으로, \$10,001에서 \$20,000이하는 2점으로, ... \$50,000 이상은 6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상대적소득은 남편의 임금을 빼기 부인의 것으로 측정되었다.

㉕ 교육수준은 총 교육을 받은 해수로 12년은 고졸, 16년은 대졸, 18년은 석사, 20년이상은 박사 학위 이상의 교육을 의미한다.

㉖ 직업의 경우는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는 1, 그렇지 않고 비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무직의 경우는 0으로 처리된 가변수이다.

5) 사회 인구적 변수들

본 연구에서 이용된 사회 인구적 변수들은 통계적 변수들로서, 연령, 인종, 그리고 가족 형태이다. 인종의 경우는 흑인일 경우는 1, 그렇지 않을 경

우는 0으로 처리된 가변수이다. 가족의 형태는 확대가족인(친척 및 부모 형제가 함께 동거)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처리된 가변수이다.

V. 연구결과 및 논의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추출된 부인과 남편의 일반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었다. 남편의 시간당 임금은 약 \$10, 부인은 약 \$5이었다. 남편의 연간 세금공제전 소득은 \$30,376, 부인의 소득은 \$9,886이며, 부인의 주당 근로시간은 26시간, 남편의 경우는 41시간이었다. 부인이 역할관념 평균값에 있어서 남편보다 진보적이며 비보수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평균 연령은 남편의 경우 37세, 부인의 경우 34세이었고, 총 교육년수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이 13년(대학 1년 이상) 정도였다. 직업의 경우 남편들중 49%인 719명, 부인 중 68%인 807명이 전문직 종사자였다. 추출된 가정의 평균 자녀수는 2명이고, 5세미만의 어린자녀 수는 1명미만이였다. 추출된 가정중 6%인 228가족이 확대가족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총 가족중 13%인 493가정이 흑인부부이었다.

2. 표본의 가사노동 시간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에 소비한 평균 시

표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특 성	부 인			남 편		
	평 균	표준편차	표 준 수	평 균	표준편차	표 준 수
시간당임금률(\$)	4.67	8.50	1,375	9.69	9.39	1,537
역할관념	3.35	0.76	1,426	3.08	0.70	1,553
주당 근로시간	26.23	19.79	3,548	40.72	18.33	3,239
연간소득	9,886	17,846	3,557	30,376	39,435	3,392
교육년수	12.91	2.53	1,459	13.00	2.95	1,659
직업 (전문직=1)	0.67	0.47	1,205	0.48	0.50	1,498
5세미만 자녀수	0.63	0.76	3,792			
총자녀수	1.99	1.06	3,792			
인종(흑인=1)	0.13	0.34	3,792			
가족형태 (확대가족=1)	0.06	0.24	3,792			

간이 표 2에 제시되었다. 또한 이 표에서, 남편의 가사 및 육아참여정도를 부부의 총 노동시간중의 남편의 시간으로 나타낸 공헌도가 제시되었다. 표 2에서, 무엇보다도 부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은 남편보다 훨씬 길었음은 쉽게 알 수 있다. 부인의 1주일간 양육과 관련된 노동시간은 42시간이었고, 남편의 시간은 16시간이었다. 남편의 자녀양육에의 참여공헌도는 27%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공헌도는 32%였다. 이 같은 남편의 상대적 공헌도는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예 : Bergen, 1990 ; Lamb et al., 1987).

각각의 노동항목별로 살펴 보면, 부인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온 음식 만들기, 그릇 세척 및 식사 뒷처리, 빨래 및 의류 손질, 집안청소 등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다. 반면 남편은 서

표 2. 부인과 남편의 1주일간의 가사와 육아노동 시간

노동종류	부인	남편	남편의 공헌도 (%)
	평균시간 (N)	평균시간 (N)	
음식준비	11.22 (N=2,746)	2.85 (N=2,226)	20.25
설거지 및 식사후 정리	7.42 (N=2,676)	2.25 (N=2,162)	23.26
집안청소	10.22 (N=2,724)	2.21 (N=2,138)	17.77
집수리 및 정원손질	2.43 (N=2,312)	5.47 (N=2,582)	69.24
장보기	3.59 (N=2,699)	1.58 (N=2,204)	19.33
의류손질 및 세탁	5.54 (N=2,748)	0.85 (N=2,042)	13.30
서류정리 및 공과금 내기	2.26 (N=2,568)	1.62 (N=2,278)	41.75
자동차수리 및 운전	2.90 (N=2,371)	4.14 (N=2,483)	58.80
총 가사노동 시간	45.58	20.97	31.51
자녀양육 시간	42.05 (N= 602)	15.82 (N= 832)	27.33

참고 : 남편의 가사 및 육아에의 공헌도=(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부부의 가사 및 육아시간)×100

휴정리 및 공과금 내기, 옥외청소 및 정원정리, 자동차수리 및 관련 업무 등에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남편의 가사노동 종류에 따르는 가사노동의 공헌도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결론적으로, 가사노동의 성별화 또는 성에 의한 가사노동의 분리가 여전히 뚜렷함을 알 수가 있다. 성별에 의한 가사노동 종류의 구별성은 많은 선행연구들이(예 : Bergen, 1990) “가사노동은 성별화된 노동이다”(“Housework as gendered activity”)라고 정의한 것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3.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본 연구의 핵심적인 과정은 가사 및 육아시간을 설명하는 이론 또는 가설들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으므로, 각각의 이론을 나타내는 대응변수들과 사회인구적 변수들의 효과를 중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다시말해, 가사 및 육아시간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조사하기위해 각각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을 구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온 여성중심형 과업, 즉, 음식 만들기, 그릇세척 및 식사 뒷처리, 빨래 및 의류손질, 집안청소 등에 할애한 남편의 시간에 대한 중회귀분석이 추가적으로 실시되었다.

1)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 분석 결과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인과 남편의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어린자녀 수, 남편의 역할에 대한 관념, 그리고 인종이었다. 이 결과로 네가지 이론과 연관하여 보면,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의 효과는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자녀 수와 부부의 근로시간은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시장노동 시간이 긴 부인일수록 가사노동 시간은 감소하며, 시장노동 시간이 긴 남편을 가진 부인일수록 가사노동 시간은 증가하였다. 또한 가정내 어린자녀 수가 많을수록 부인의 가사시간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은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을 설명하는 매우 설득력있는 가설로 나타났다.

표 3. 부인의 가사 및 육아시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가사노동 시간(N=938)		육아노동 시간(N=602)	
	비표준화 회귀계수	F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F값
<u>경제적 효율</u>				
부인의 임금률	-0.188	1.143	-0.010	0.210
부부의 임금률 비율	-0.034	2.700	0.000	0.058
<u>수요 및 실행 가능</u>				
부인의 근로시간	-0.219	11.279**	-0.097	84.024**
남편의 근로시간	0.199	13.152**	0.022	5.345*
어린자녀 수(5세미만)	4.333	8.321**	-0.175	0.348
<u>성 역할 관념</u>				
부인의 역할관념	-2.112	2.095	-0.571	4.675*
남편의 역할관념	-3.155	4.363*	0.234	0.815
<u>개인적 자원</u>				
부인의 소득	-2.197	2.899	-0.101	0.209
부부의 소득 차	-0.286	0.130	-0.320	4.397*
부인의 교육수준	-0.935	3.371	-0.116	1.838
부인의 직업	-2.644	1.379	0.407	1.077
<u>사회 인구적 변수</u>				
부인의 인종	8.560	6.658**	0.860	2.122
부인의 연령	0.091	0.288	-0.073	3.664
가족형태	0.633	0.014	0.438	0.212
Intercept	70.098	52.703***	12.828	66.450**
Multiple R	0.305		0.446	
Adjusted R square	0.079		0.180	

*p<.05 **p<.01 ***p<.001

성 역할 관념가설 또한 설득력있는 가설로 증명되었다. 남편의 역할에의 관념은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남편이 비전통적인 관념을 가질수록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나, 진보적이며 비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경제적 효율가설은 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은 그 자신의 임금률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의 방향분석에서 부인 자신의 임금률과 가사노동 시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부인일수록 가사노동 시간은 감소함을 알 수 있어 경제적 효율가설의 기본적 전제와 일치한다. 그러나, 부부간의 임금비율(wage ratio)의 효과는 경제적

효율가설의 전제와 일치하지않고있다. 경제적 효율가설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부인보다 남편이 높은 임금을 가진 경우 남편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또는 효율성이 높으므로 남편의 가사시간은 감소하며, 동시에 부인의 시간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높은 임금의 남편을 가진 부인의 가사시간은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효율성가설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아마도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에 소득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말해, 남편의 높은 임금은 가사노동을 상업화하거나(예: 외식, 세탁소 이용, 청소기 이용) 가사를 돕는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부인의 가사시간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인의 시간 분석에서, 부인 임금률의 효과방향은 경제적 효율가설과 잘 부합되나, 남편의 임금률의 경우는 이

가설에 잘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상대적 자원가설의 효과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의 가사노동 시간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업 등에 무관한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요인은 아니나, 효과의 방향분석에서,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의 효과는 상대적 자원가설의 전제와 잘 부합되고 있다. 여기에서도, 부인 자신의 소득과 가사노동 시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어 상대적 자원가설의 기본적 전제와 일치하나, 상대적 소득(부부간의 소득 차)의 효과는 이 가설과 잘 맞지 않고 있다. 이는 상대적 임금률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사회 인구적 변수들중에서는 부인의 인종만이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흑인여성과 가사노동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흑인가정의 가사분담의 실태를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부인 연령과 확대가정에서의 부인의 가사시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어 흥미롭다.

2) 부인의 육아시간 분석 결과

부인의 육아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인 자신과 남편의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자신의 성 역할 태도, 그리고 상대적 소득수준이었다. 이 결과로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의 효과는 대체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노동시간이 긴 부인일수록 육아시간은 감소하며, 시장노동 시간이 긴 남편을 가진 부인일수록 육아시간은 증가하였다. 또한 본인이 비전통적인 관념 또는 태도를 가질수록 육아시간은 감소한다.

이 이외의 가설들의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대적 소득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상대적 자원가설의 기본적 전제과 반대로, 자신보다 높은 소득을 가진 남편을 가진 부인일수록 육아시간은 감소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인의 가사시간 분석시 부부간의 임금비율의 효과 결과와 유사하게 소득효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분석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남편 자신의

특성인, 성 역할 관념, 소득, 그리고 인종이었다. 이론적 가설과 연관시켜 보면, 무엇보다도 성 역할 관념가설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을 잘 설명하는 가설로 증명되었다. 남편의 비전통적인 사고관과 가사시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한편 남편시간에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의 무효과는 부인의 시간 분석과 대조적이다. 가사노동의 수요를 나타내는 어린자녀수 및 이용가능시간을 대표하는 직장에서의 근로시간은 무의미한 변수들임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경제적 효율가설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금률은 남편의 가사의 참여량을 결정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사의 수요가 많건 적건, 경제적 효율성이 높건 낮건 상관없이, 남편 자신의 정신적인 사고관에 의해 가사 참여정도가 결정됨을 알 수 있다.

상대적 자원가설의 경우 남편의 소득만이 가사노동 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사시간은 감소함을 알 수 있어 상대적 자원가설과 잘 부합된다. 반면, 부부간의 상대적소득과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요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효과의 방향에서 상대적 자원가설과 잘 부합되지 않고 있다.

사회 인구적 변수들 중에는 단지 인종만이 남편의 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부인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남편의 연령과 확대가정에서의 남편의 가사시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어 흥미롭다.

4) 남편의 육아시간 분석 결과

남편의 육아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인 자신의 근로시간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태도이다. 이 결과에서, 부인의 특성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으나,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과 성 역할 관념가설 효과는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노동 시간이 긴 남편일수록 육아시간은 감소하며, 반면 시장노동 시간이 짧고, 보다 자유로운 사고관을 가진 남편일수록 육아시간은 증가하였다. 그 이외의 가설들의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가사노동 시간(N=938)		육아노동 시간(N=602)	
	비표준화 회귀계수	F값	비표준화 회귀계수	F값
<u>경제적 효율</u>				
남편의 임금률	-0.038	0.307	0.006	0.254
부부의 임금률 비율	-0.003	0.117	0.000	0.027
<u>수요 및 실행 가능</u>				
남편의 근로시간	0.019	0.295	-0.021	15.998**
부인의 근로시간	0.047	1.557	0.008	2.275
어린자녀 수(5세미만)	0.517	0.366	-0.101	0.486
<u>성 역할 관념</u>				
남편의 역할관념	1.802	3.732*	0.396	8.542**
부인의 역할관념	1.511	2.878	-0.139	1.061
<u>개인적 자원</u>				
남편의 소득	-1.667	4.184*	-0.120	1.028
부부의 소득 차	0.678	1.004	-0.017	0.032
남편의 교육수준	0.134	0.243	-0.070	2.876
남편의 직업	-2.659	3.645	-0.181	0.821
<u>사회 인구적 변수</u>				
남편의 인종	4.408	4.093*	0.442	1.825
남편의 연령	-0.091	1.157	-0.013	0.803
가족형태	-4.097	1.763	-0.236	0.273
Intercept	13.813	5.858**	4.165	26.173*
Multiple R	0.209		0.257	
Adjusted R square	0.032		0.050	

*p<.05

**p<.01

***p<.001

여기에서 살펴 볼 것은, 유의미한 변수는 아니나, 남편의 교육수준과 육아시간이 부적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상반되고 있다. 몇몇의 연구들이 교육수준이 높은 남편이 육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들의 육아시간이 긴 것으로 발표했다(예 : Cherlin, 1988 ; Coverman & Sheley, 1986 ; Gronau, 1976 ; Riley, 1987). 이 같이 일치하지않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 조사된 육아에의 활동이 주로 기본적 육체적노동으로 기저귀 갈기, 음식먹이기, 씻기기, 재우기 등인데 반해, 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함께 놀아주기, 야외활동, 책 읽어주기 등에 관련된 시간에 대한 분석이어서, 노동의 성격의 차이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틀린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은 남편일수록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간주되어

은 기본적 육체적 노동시간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남편의 여성중심형과업 수행시간 분석 결과
보통 음식물만들거나 그 뒷처리, 세탁 및 청소 등 전통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가사노동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여성중심형 과업에 대한 남편의 시간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남편의 여성중심형 과업시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인의 직장에서의 근로시간, 남편 자신과 부인의 성 역할에 대한 관념, 그리고 남편의 연령이었다. 이 결과는,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과 성 역할 관념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입장에서 가사노동의 수요량은 부인의 취업(근로시간)으로 측정되었으며, 여성 중심형 가사노동 시간은 부인의

표 5. 남편의 여성중심형 가사시간 회귀분석 결과 (N=1,145)

독립변수	비표준화 회귀계수	F값
경제적 효율		
남편의 임금률	-0.014	0.147
부부의 임금률 비율	0.001	0.043
수요 및 가능		
남편의 근로시간	-0.031	2.462
부인의 근로시간	0.056	7.067**
어린자녀 수(5세미만)	0.104	0.048
성 역할 관념		
남편의 역할관념	1.303	6.437**
부인의 역할관념	1.416	8.182**
상대적 자원		
남편의 소득	-0.769	2.946
부부의 소득 차	0.257	0.147
남편의 교육수준	0.213	1.996
남편의 직업	-0.549	0.515
사회 인구적 변수		
남편의 인종	0.492	0.164
남편의 연령	-0.091	3.727*
가족 형태	-3.190	3.512
Intercept	1.689	0.285
Multiple R	0.243	
Adjusted R square	0.048	

*p<.05 **p<.01 ***p<.001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시간에 영향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장노동 시간이 긴 부인을 가진 남편일수록 그의 음식만들기, 설거지, 빨래 등 전통적으로 여성중심형의 가사노동 시간은 증가한다. 따라서 요구 및 실행가능가설은 남편의 총 가사노동 시간은 설명하지 못하나, 여성중심형의 가사시간을 설명하는 가설로 나타났다.

성 관념가설 또한 설득력있는 가설로 증명되었다. 본인자신과 부인의 역할관념은 가사노동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부인과 본인이 비전통적인 관념을 가질수록 보다 여성중심형의 가사노동 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중심형 과업의 성격상, 성 역할 관념가설의 효과가 큰 것은 가사노동이 성별화된 노동이어서 이 노동에 대한 정신적 가치관이 중요함을 잘 나타낸다 하겠다. 따라서,

보다 비전통적인 사고관 또는 태도를 가진 남편 일수록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남편보다 음식 만들기, 설거지, 청소, 빨래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경제적 효율가설과 상대적 자원가설은 그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 사회인구적 변수들중에서는 남편의 연령만이 큰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젊은 남편일수록 여성중심형의 가사노동 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로 주목할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가사노동은 여전히 부인의 일로 간주되어 오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은 성별화된 노동으로서 부인은 보다 전통적으로 간주되어 온 음식만들기, 설거지, 빨래, 집안청소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남편은 옥외청소 및 정원정리, 자동차와 관련된 일 등에 많이 참여함을 알 수 있다.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량의 결정요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볼때, 본 연구에 도입된 가설들의 효과는 남편보다는 부인의 시간분석에, 또 육아시간보다는 가사시간 분석에 더 설명력이 있었다. 이는 가사노동 시간분석시는 성별에 따라, 노동의 종류에 따라 구별하여, 분석하여야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을 잘 설명하는 이론은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과 성 역할 관념가설이었다. 따라서 부인의 가사 및 육아노동 시간은 해야할 일의 양과 할수있는 시간의 양, 그리고 성 역할과 관련된 사고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효율가설과 상대적 자원가설의 효과는 인정되지않았다. 이는 부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은 논리적인 경제적조건보다는 가정의 환경이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셋째, 남편의 총 가사노동 시간은 그 자신의 특성인 성 역할에의 관념과 소득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시간에서도 역시, 그 자신의 특성인, 성 역할에의 관념과 근로시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가

사시간은 남편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나,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은 부인의 조건이나 특성보다는 그 자신의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성 역할 관념가설은 부인과 남편 모두의 가사 및 육아시간을 잘 설명하는 가설로 나타났다.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은 남편보다는 부인의 가사 및 육아시간에 더 설득력있는 가설임이 밝혀졌다.

네째, 남편의 여성중심형과업에의 시간은 남편 자신과 부인의 성에 따른 역할에 대한 관념과 부인의 근로시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총 가사노동 시간은 그 자신의 변수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달리, 여성중심형 과업에는 부인의 특성인 역할에의 관념과 근로시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요 및 실행가능가설이 남편의 총 가사 시간을 설명하는 효과는 크지 않았으나, 남편의 여성중심형의 가사시간에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에는 사고방식 또는 역할에 대한 가치관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대체적으로, 가사 및 육아와 관련된 가정 환경적 조건, 즉 해야할 일의 양과 할 수 있는 가능시간 등이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에의 양적인면을 연구하였다. 양적인 면 이외에 가사노동의 성격과 내포된 특성인 질적인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같은 시간을 소비했다 해도 어떤 가사노동에 참여했느냐에 따라 가사노동의 질적측면인 노동으로 인한 피로, 성과, 만족도, 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예를들면, 맞벌이부부의 경우 바쁜 아침시간에 이루어진 아침식사를 위한 30분과 주말에 이루어진 정원정리의 30분은 여러 가지 질적인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가사노동의 시간연구에 있어 양적인면이외에 질적인면이 동시에 고려되기를 제안한다.

참고 문헌

- 1) 허경옥(1993). Fathers' time allocation in child care across family type. Dissertation in Univ of Wisconsin-Madison.
- 2) Barnett, R.C. & Baruch, G.(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3) Becker, G.S.(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4) Becker, G.S.(1974). A theory of marriage : Part II.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s11-s26.
- 5) Belsky, J., Gilstrap, B. & Rovine, M.(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Child Development* 55, 692-705.
- 6) Berardo, D.H., Shehan, C.L. & Leslie, G.R.(1987). A residue of tradition : Jobs, careers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81-390.
- 7) Bergen, E.(1990).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domestic labor : An investigation of husbands' particip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 of Wisconsin. NSFH working paper, 36, CDE, Univ. of Wisconsin-Madison.
- 8) Berk, S.F.(1988). Women's unpaid labor : Home and community in women working. In Stromberg, A. & Harkess, S.,(eds.), Mountain view, CA : Mayfield, 287-302.
- 9) Berk, R.(1980). The new home economics : An agenda for sociological research. 113-148. Beverly Hills, Sage Inc.
- 10) Berk, R.A. & Berk, S.F.(1978).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for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6, 431-468.
- 11) Berk, S.F.(1985). The gender factory : The apportionment of weak in American household. New York : Plenum Press.
- 12) Blood, R.O. & Wolfe, D.M.(1960). Husbands and wives. New York : The Free Press.
- 13) Cherlin, A.(1988). The changing American family and public policy. Washington, D.C. : The Urban

- Institute Press.
- 14) Condran, J. & Bode, J.(1982). Rashomon, working wives, and family division of labor : Middle-tow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421-426.
 - 15) Coverman, S.(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 16) Coverman, S. & Sheley, J.F.(1986). Change in men's housework and child-care time, 1965-1975.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413-422.
 - 17) Crouter, A.C., Perry-Jenkins, M., Huston, T.L. & McHale, S.M.(1987). Processes underlying father involvement in dual-earner and single-earner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431-440.
 - 18) Ericksen, J.A., Yancey, W.L. & Ericksen, E.P. (1979). The division of family ro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01-313.
 - 19) Farkas, G.(1976). Education, wage rates, and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husband and w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473-484.
 - 20) Feldman, S.S., Nash, S.C. & Aschenbrenner, B.G. (1983). Antecedents of fathering. *Child Development* 54, 1628-1636.
 - 21) Geerken, M. & Gove, W.R.(1983). At home and at work : The family's allocation of labor. Beverly Hills, CA : Sage.
 - 22) Gronau, R.(1976). The allocation of time of Israeli wom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 S201-S220.
 - 23) Gronau, R.(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1099-1124.
 - 24) Hiller, D.V.(1984). Power dependence and division of family work. *Sex Roles* 10, 1003-1019.
 - 25) Hiller, D.V. & Philliber, W.W.(1986). The division of labor in contemporary marriage : Expectations, perceptions and performance. *Social Problems* 33, 191-201.
 - 26) Hochschild, A.(1989). The second shift. New York : Viking.
 - 27) Huber, J. & Spitze, G.(1983). Sex stratification : Children, housework, and jobs. 75-77. Academic press.
 - 28) Kamo, Y.(1988). Determinants of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ournal of Family Issues* 9, 177-200.
 - 29) Lamb, M., Pleck, J., Charnow, E.L. & Levine, J.A. (1987). A biosocial perspective on paternal behavior and involvement. In J.B. Lancaster, J. Altmann, A. Rossi & L.R. Sherrod(eds.), Parenting across the life span. Chicago : Aldine 111-142.
 - 30) Levy-Shiff, R. & Israelashvili, R.(1988). Antecedents of fathering : Some further explo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3), 434-440.
 - 31) Maret, E. & Finlay, B.(198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among women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57-364.
 - 32) McHale, S.M. & Huston, T.L.(1984). Men and women as parents : Sex role orientations, employment and parental roles with infants. *Child Development* 55, 1349-1361.
 - 33) Model, S.(1981). Housework by husbands : Determinant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Family Issues* 2, 225-237.
 - 34) Pleck, J.(1977). The work-family role system. *Social Problems*, 24, 417-447.
 - 35) Pleck, J. H.(1983). Husbands' paid work and family roles : Current research issues. In H. Lopata & J. Pleck(Eds.), Research in the interweave of social roles 3, Families and job. Greenwich, Ct : JAI.
 - 36) Pleck, J. H.(1985). Working wives & 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CA : Sage.
 - 37) Riley, D.(1987). Father involvement with six years old : Correlates differ by maternal employment status and area of childrearing involvement.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altimore.
 - 38) Robinson, J.P.(1977). How Americans use time :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of everyday behavior, New York : Praeger.
 - 39) Ross, C.E.(1987).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Social Forces* 65, 816-833.
 - 40) Shelton, B.A.(1990).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tasks : Does wife's employment status make a difference ? *Journal of Family Issues* 11, 115-135.
 - 41) Stafford, R., Backman, E. & Dibona, P.(1977). Di-

- vision of labor among cohabiting and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43-57.
- 42) Sweet, J.A., Bumpass, L.L. & Call, V.R.A.(1988). The design and content of the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NSFH Working Paper No. 1.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 of Wisconsin.
- 43) Thompson, L. & Walker, A.(1989). Gender in families : Women and men in marriage, work, and paren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45-871.
- 44) Vanek, J.(1983). Household work, wage work, and sexual equality. 4th ed., In Skolnick, A.S. & Skolnick, J.H.(eds.). *Family in transition*, Boston : Little, Brown 176-189.
- 45) Volling, B.L. & Belsky, J.(1985). Multiple determinants of father involvement during infancy in dual-earner & single-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61-474.